



## 한국출판인회의 서울북인스티튜트 개원 10주년 기념 강좌 출판에이전시를 통해 본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출판 동향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윤철호) 부설 교육기관인 서울북인스티튜트(원장 김태헌, SBI)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세계 출판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SBI는 한국 최초의 출판전문 교육기관으로, 2005년 개원 이래 500여 명의 신규 출판인을 배출했고 1만여명의 출판인들에게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행사에서는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에이전시 대표가 '미국 출판 산업, 그리고 저작권 수출', 이정민 신원에이전시 부장이 '일본 출판시장 분석과 미래',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가 유럽 출판시장의 흐름 이해(독일, 영국, 프랑스), 백은영 캐럿코리아 대표가 '현재와 미래 중국·동남아시아 출판시장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 미국 출판시장의 현실과 가능성, 그리고 전략

미국 출판시장에서 번역 출판물의 비중은 고작 3%에 불과하며, 그중 해외 문학의 비율은 단 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해외출판물의 비율이 미국에서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 있는 책은 그 1%

의 관문을 통과한다. 이구용 대표는 "성공이 예견되는 책을 본체만체 외면할 강심장을 가진 출판인은 거의 없으며, 영미권으로의 진출과 성공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다만 이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1%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그 비율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라며 "결국 한국 출판물을 미국 시장으로 진출시키는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우리 스스로가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구용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성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과 책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콘텐츠

의 우수성만을 내세우는 것도, 대중적인 상업적 코드만을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의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정된 시장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접근 가능한 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미국출판시장으로의 접근전략도 중요하다. 미국 출판시장과 현지 출판사 각각의 사정을 잘 아는 대상을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지 주요 출판사의 환경과 그곳에 소속된 편집자들의 성향을 그 거점(혹은 사람)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전략은 유려한 번역역을 하는 훌륭한 역자와 유기적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해외에 선보일 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 일본 출판시장의 분석과 미래

출판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 일본 출판물의 총판매액은 1조6065억 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했다.

1950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10년 연속 전년도를 밑돌고 있으며, 제일 높았던 1996년 2조6564억엔에 비교하면 약 40% 정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적은 전년대비 4% 감소한 7544억엔으로 8년 연속, 잡지는 5% 감소한 8520억엔으로 1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출판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외에도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독서 인구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4년 4월부터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것이 예상밖의 큰 영향을 주어 독서 구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검색 또한 쉽기 때문에 잡지에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출판사들은 전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예춘추는 문예지인 '별책 문예춘추'를 전자판으로 내고 있으며, 카도카와는 월 540엔으로 정해진 도서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가도카와문고 프리미엄 클럽'을 시작했다. 고단샤는 미야베 미유키, 곤노 빈 등 인기작가 24명중 각 서점에서 10명을 뽑아 그 대표작과 그 다음 읽을 책을 함께 진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5500엔(세금별도)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14만부를 발행했으며, 개그맨인 마타요시 나오키가 쓴 첫 소설 '불꽃'이 실린 문예지 '문학계'는 1933년 창간 이래 처음으로

재판을 찍었다. 현재 이 소설은 제 153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으로 선정돼 단행본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 유럽 출판시장, 판타지 등 상업소설 강세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출판시장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대중소설의 경우 과거 장르소설이라 불리던 판타지, 스릴러, 로맨스 등 상업소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로맨스), 독일(심리 스릴러), 프랑스(탐정소설), 북유럽(스칸디나비아 노와르) 등 유럽 각국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장르적 색채가 있었으나 최근 유럽내에서 이민자 가정의 늘어나고 유럽 각국의 문



화가 서로 뒤섞이면서 장르간의 융합이나 결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컬러링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여전히 컬러링북이 강세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15년 상반기 동안 안티스트레스, 마음챙김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컬러링북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됐다. 건강과 다이어트, 요리분야의 책들도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격변하는 유럽의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관련 도서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화의 붕괴위기, 그리스 경제위기, 전 세계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한 IS, 샤틀러 테러 등 바람 잘 날 없

는 유럽 세계에 대한 원인과 진단, 전망 관련 서적들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 중국·동남아 출판시장, 휴대폰 결합된 참신한 읽기물 요구

중국 출판사는 국영 출판사 약 560개, 민영 출판사 1천개 이상으로 출판사가 점점 대형화·그룹화되고 있다. 오프라인 서점은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24시간 운영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서점은 당일 배송, 높은 할인율 등으로 해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유아 워크북, 학습만화, 학습물 등이 인기가 높았으며, 최근 들어 인성동화, 과학그림책 등도 대량 출간되고 있다. 중국 출판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판사마다 이윤에 대한 압박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터넷, 휴대폰시장과 결합한 참신하고 흥미로운 읽기물을 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국 출판사는 534개(태국출판협회 등록 출판사)로 이중 20여개의 출판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흥미·재미,

지식 및 자기계발, 만화 및 장르소설, 건강, 태국소설 순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민 일 평균 독서시간은 37분에서 28분으로 독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출판사는 1210개(인도네시아출판협회 등록 출판사)로 약 800여개 출판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중 90%에 해당하는 출판사가 자바섬에 집중돼 있다. 한해 출간종수는 2만4천여종으로 종당 평균 인쇄부수는 3천권이다. 도서 정가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비싼 편이지만 섬으로 이뤄져 있어 유통비가 비싼 편이다. 만화시장이 비교적 큰 편으로 일본 만화시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